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서는

“오대산 명상지구 特區화 필요”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 추진나설 것”

제23회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 성공 개척을 위해 오대산 월정사 일원을 명상 지구로 특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불교계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설립 계획은 지난해 8월 평창군에 의해 기획돼 정부에 심의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는 반려된 상태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지난해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지정 및 특구 종합계획안’을 정부에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난히 통과됐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논의 끝에 반려됐다”면서 “다시 오대산 일원을 명상 지구로 특구화 하는 사업안을 작성해 정부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1차로 제안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 지정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척하고 ‘문화 올림픽’으로 승화하기 위한 콘텐츠이다.

평창군은 계획 보고서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열린 평창강종합특구와 가장 근거리로 입지하고 있는 이점과 백두대간의 중심인 오대산의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면서 “명상을 중심으로 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를 조성해 명상지구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업 면적은 오대산 일원 0.65km²

로 명상 마을, 스포츠 수양촌, 연구 및 문화 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추진본부 관계자는 “지역 신문에서도 문화 올림픽을 위해 오대산 명상 지구 특구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양한 여론과 대안이 모아지면 특구화 계획안을 정부에 올릴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계획안을 작성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차 계획안 상정
국토부 심의서 최종 반려돼
계획안 재수립해 지정 추진

‘문화 올림픽’ 위한 필수 요소
교구본사協, 지정 촉구 결의
평창군의회서 관련 발언 이어져

오대산 명상지구 특구화 사업은 강원 불교계의 현안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실제 조계종 교구본사지침회의(회장 돈관)는 7월 1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지역현안인 2018 평창올림픽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 지정 촉구 및 성공적 개최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대산 자연명상 지구 특구화 시설배치 계획도. 지난해 8월 수립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평창군은 다시 계획안을 작성해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사지침회는 결의문을 통해 2018 평창올림픽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구 지정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적 개최에 동참하고, 문화올림픽을 위한 전통문화 육성 등도 결의했다.

본사지침회는 “우리 고유 명상문화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명상문화를 체험을 통해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대산자연명상지구’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창군의회에서도 오대산 자연명상지구의 특구화 지정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범연 평창군의회는 7월 22일 속개된 평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 군정 주요사업 보고서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도로변 노후 다가구주택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동계올림픽특구 변경 시 오대산 명상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민추본, 23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MOU체결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고유환)와 손잡고 민추본 발전과제 보고서 ‘민추본2.0’의 비전 구체화에 나섰다.

민추본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관계 연구, 조사, 교육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1994년 국내 최초로 북한학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교육사업이 공동 추진된다.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조사 역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민추본은 지난 4월 중장기 대북사업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강산 지역으로 국한됐던 남북교류를 평양, 개성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을 통한 북한주요지역 교류거점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홍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불교 교류 및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통일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고유환 교수 역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20년간 학과를 운영하면서 남북관계 연구에 관해 나름대로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다.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 중단과 종합학교가 손잡는 만큼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추본 집행위원이기도 한 고유환 교수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불교통일교육 내용을 연구개발하고 과정을 개설해 중단소속 스님과 일반 신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통일 인재 양성을 위해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7월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사진 오른쪽은 지홍 스님, 왼쪽은 고유환 소장

日 위안부 할머니 기록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위안부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 여성가족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 주도로 민·관 합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등재 추진전략을 짜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일본 반발과 반대보리가 예상되므로 정부 단독 혹은 이웃 국가간 공동등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반해 여성가족부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에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자료와 피해 사실 기록,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기록과 각 국 의회 결의안 등이 포함된다.

배현진 기자

미국 내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계기 마련

韓美 양국 7월 22일
‘환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불법 드러나면 형사 몰수
정보 공유 등 효과 기대돼



문화재청장(나선화, 왼쪽)과 미국 이민관세청장 토마스 원코스키가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7월 22일 오전 11시(미국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했다.

불법반출된 미국 내 한국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과 7월 22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민관세청은 미국 내 각종 수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반환하며 진행된 한미 공조가 계기였다. 양해각서 체결 전 한미 양국은 이미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 경매에 올려지자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반출됐음을 밝히고 환수한 바 있다.

양해각서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해 환수토록 했다.

그동안 미국 내 문화재 환수는 국제사회에서는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 의정서’에 의거한 전시(戰時) 반출문화재 반환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이런 반환은 대부분 전후 피해보상 등의 단계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비소급 원칙(시간을 거슬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란 점이 발목을 잡아왔다.

또 불법 거래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양국 간 정보공유를 명시해 향후 미국 내 한국문화재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현재 대검찰청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 수사 중인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환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지장보살님께서서는 대한민국 대구에 현신하신다!!

‘영산불교 현지사 대구분원’은 지장보살님의 주처(住處)로서 영험한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가피로 딸아이가 취직을 하다

2012년 음력 12월 1일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에 입재한 후 지금까지 계속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지장보살님 가피를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은 제 딸입니다. 제 딸은 2013년 5월에 국민보험공단 입사할려고 시험을 보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지자 낙심을 하고 다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공무원시험에서도 낙방의 쓴 맛을 또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장보살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딸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년 그대로 국민보험공단에 원서를 내고 필기시험을 봤는데 합격했고 이제 면접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기대를 안했고, 제가 격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보험공단에 원서 내는 것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며칠 후에 면접을 보고 드디어 합격의 통지를 받았습니니다.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던 합격이 이번에는 너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기 직전에 딸이 꿈을 꾸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늘에 큰 화분이 매달려 있고 그 화분에서 네 일클로버를 두 개 따는 꿈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주신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딸은 연수를 끝마치고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라고 매우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도 불자로서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 대구시 서구 평리로 54길 이상혜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이비·외도·사마외도의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정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욕·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를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명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조상법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 품씩 나누어 읽는다)
침부다라니를 7회 정도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명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일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마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 654-5557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